

런던패션위크 오프닝 무대 연, 이정선 디자이너 (의류 96학번)

“계속 노력하고 생각하면
특별한 사람 될 수 있어”



이정선 디자이너는 의류학과를 졸업해
국내 패션관련 기업에 근무하다가 영국으로 유학을
떠난 뒤 현재는 자신의 이름을 딴 'J. JS LEE' 브랜드를
런칭하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영국패션위크의 오프닝 무대를 장식하며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이정선 디자이너와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요?

대학 졸업과 동시에 코오롱에 모델리스트 2년, 다른 브랜드에
서 3년 총 5년 정도 패션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일하던 도중 해
외의 패션경향과 산업동향이 궁금하여 패턴을 깊게 더 배우고
자 런던으로 유학을 떠났고, 런던에서 모델리스트로 일을 하다
가 센트럴 세인트 마틴 여성복 석사과정을 지원하여 마쳤습니
다. 지금은 제 이름의 브랜드를 런칭하여 4년째 런던패션위크
에서 온 스케줄로 패션쇼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런던패션위크 오프닝 무대 이후 근황이 어떠신지요?

2월 무대를 끝내고 언론과 바이어들의 반응이 좋아져서 현재는
인터뷰와 오더 생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9월에 있을 패
션쇼 준비도 시작해서 동시에 진행하느라 바쁘게 지내고 있네
요. 9월에도 오프닝 무대를 하게 되어 컬렉션뿐 아니라 영상과
인쇄물 제작에도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런던패션위크 오프닝 무대를 장식한 것이 국내 언론에도 보도될 정도로 화제가 되었는데요.

런던패션위크의 오프닝은 주로 메이저 브랜드들이 도맡아 왔
습니다. 두 세 시즌 전까지는 Daks가 도맡아 하고 있었는데,
뉴욕패션위크에서 Mark Jacobs가 관중들을 잡아두기 위해 마
지막날 마지막 쇼를 하면서부터 닥스가 런던의 오프닝을 안 하
기로 했죠.

영국패션협회에서는 이슈를 만들고 관중을 끌어오기 위해 방

안을 모색하던 중 저에게 오퍼가 주어졌습니다.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오프닝 당일은 몰랐는데, 그 다음날 언론들이 보도를 쏟아내면서 실감했죠. 이게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를... .. 압박감과 스트레스로 쇼 직전까지 잠까지 설쳐가며 준비를 했습니다. 오프닝이라는 단어 자체의 압박이 있었지요. 무대를 끝내고 나서 생각해보니 기회를 준 것은 물론 이방인이 아닌 가족으로 생각하고 지원해 준 영국패션협회에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또 한번 이슈를 만들어야하는 압박이 더 커졌지만, 그래도 더 좋은 방향으로 성사시켜보려고 합니다.

첫 직장은 국내 패션 브랜드의 패턴사로 취업하신 것 같은데요. 패턴사로 진로를 결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디자이너가 꿈이었지만, 패턴을 모르면 디자인을 아름답게 현실화시킬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패턴을 먼저 배우기로 했어요. 공장에 가서도 배우고(물론 무료요) 패턴 선생님들 찾아가서 심부름도 하고, 그러다 코오롱 패턴 공채에 처음 뽑혔는데, 패턴이 아닌 그레이딩(garding, 표준 치수의 본을 하나 만들고 그것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일)으로 들어갔지요. 패턴을 만진 것은 그 이후 1년 뒤의 일입니다.

2000년대 초반 IMF의 영향이 남아 있던 시기로 일당백을 할 수 있는 값싼 경력직만을 찾을 때였어요. 디자이너는 피팅, 디자인, 외국어 이 모든 걸 갖춰도 취업이 어려운 상황이었지요. 저는 당시 피팅은 물론 외국어도 안 되고 딱히 디자이너로서 홀출하지도 않았고, 디자이너로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아 '일단 패션업체에 발이라도 들어야겠다'는 생각에 패턴사로 우회로를 택하게 된 거지요. 물론 절대 후회는 안합니다. 절대로. 엄청난 도움이 되었고, 필수로 배워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원래 꿈이 디자이너였는지요?

디자이너가 꿈이었습니다. 많은 패션과 학생들이 그렇듯이, 폼나 보이고, 쉬워 보이고, 우아하게 앉아서 그림 그리고, 옷 나오면 모델에 입혀서 가봉보고, 멋져 보이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멋있고, 돈도 많이 벌 것 같고, 힘든 패턴, 봉제, 재단 안하고, 창의적인 일만 할 것 같았거든요.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일이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패턴사를 하면서 막내디자이너에서 실장급 디자이너

까지 그들의 직장생활을 보면서 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디자이너가 화려하지만은 않다는 것을요. 사실 한국에서는 패턴으로 장인이 되어 뼈를 문졌다는 생각까지 했었지요. 물론 런던에 와서 그 생각이 다시 바뀌긴 했지만.

패턴사로 일하다가 영국으로 유학을 결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5년 정도 일하면서 챗바퀴 돌아가듯 지루한 회사생활에 권태기를 느꼈다고나 할까요. 해외의 패션산업들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했어요. 좀 더 새로운 걸 배워보고 싶어 유학을 결정했지요. 유학 전, 모델리스트컨테스트에서 우수상을 받아 파리, 밀란, 런던의 패션학교 탐방을 부상으로 받아 세 학교를 방문할 기회를 얻었고 런던의 세인트마틴이 마음에 확 들어왔습니다. 비가 자주 오는 도시라는 것도 마음에 들었고, 무언가 아날로그적인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 당시 바쁘고 똑같은 회사생활에 지쳐있을 때여서 더욱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런던 유학을 결정했지요.

유학을 하면서 또 현재는 영국에서 활동하는 디자이너로서 어려웠던 점들이 있었나요?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유학이든 회사생활이든 외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비슷한 마음을 가질 것 입니다. 이방인이라는 마음. 내 나라가 아니고 내 언어가 아닌데 당연히 불편한 것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니지요.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불편함과 불이익이지요. 내가 마음가짐을 바꾸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초기에 어려웠던 것은 물론 언어입니다. 중학생수준의 기초영어를 가지고 유학길에 올랐기에 제 의사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지요. 그래서 작업으로 보여줘야하고, 모든 제작과정을 포트폴리오에 상세히 나열하지 않으면 이해받지 못했지요. 회사에서 패턴사로 일 할 때는 제가 Head Pattern cutter였기 때문에 모든 것이 완벽했어야 했어요. 패턴을 잘못하면 생산과 샘플이 잘 못 나오니까요. 의사소통으로 인해 공장에서 생산 중이던 100피스가 넘는 원피스가 사고가 나서 책임을 지어야 했을 땐 아찔하더라구요. 해결방법은 영어공부 뿐이었지요.

런던의 교육체계가 한국과 매우 달랐던 것도 저에게는 어려운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 브랜드에서 패턴을 하던 저에게는 만들기 쉽고, 가능한 옷만 하고, 그다지 창의성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세인트마틴에서 석사과정을 할 때 교수님은 저에게 그림을 그리지 말라고 하셨지요. 뻔한 옷만 그린다고. 펜을 빼앗아 가버리고, 스케치 하는 것이 걸리면 엄청 혼나고 했어요. 스케치를 보여줄 수도 없었지요.

그 대신 마네킹에 입체구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간 중간 사진을 찍고, 그것을 패턴으로 옮기고, 다시 입체구성을 하고, 사진으로 교수님께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창의력을 키우기 위한 하나의 훈련이지 않았나 생각되네요.

학창시절 어떤 학생이였는지요?

충남대학교에 다닐 때는 자유로운 대학생활을 즐기느라 시간이 모자랄 정도였지요. 동아리활동, 학과 활동, 정신없이 했었거든요. 하도 놀아서 실습이 아닌 수업시간에는 졸다가 혼난 적도 많았어요. 그렇게 눈에 띄는 학생도, 그렇다고 너무 조용한 학생도 아니었어요. 정말 평범한. 묵묵히 자기 일하는 평범한 학생이었죠.

2010년 J.JS LEE라는 독자 브랜드를 런칭하고 활발한 작품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디자인의 철학은?

'Minimal and Modern in new way'. 깨끗한 옷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깨끗하고 미니멀해서만은 안 됩니다. 꼭 무언가 새로운 것이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조용하되 힘을 가진 옷. 제가 만들고 싶어 하는 옷입니다. 저는 타인 앞에 나서거나, 파티에 가거나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조용히, 묵묵히, 그러나 강하게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조용하되 무게있는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옷.

디자이너로서 앞으로의 목표는 어떻게 되시는지요?

조금 더 글로벌하게 커지는 것이지요. 기회가 된다면 남성복도 하고 싶고요. 작은 회사여서 아직 불안한 게 많아요. 정착을 제대로 시키는 것이 우선이겠네요. 한국 디자이너로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메가브랜드를 만들고 싶어요.

인생이라는 커다란 도전을 눈 앞에 둔 대학 후배, 인생의 후배들에게 해 주실 말씀은?

많은 경험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어떤 경험이라도, 전공에 상관없어도 괜찮습니다. 다양한 경험은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다양한 대인관계 방법을 키워줍니다. 나중에 본인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꼭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건 본인에게 노력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디어가 있으면 현실화 해보고, 펜이 있으면 그리고 쓰고, 사람을 만나면 대화와 토론을 해보고 말이지요. 특이한 사람은 있지만 특별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학생들이 저에게 여가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질문하면서, 여가시간이나 생각도 특별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매우 평범한 사람입니다. 시간이 나면 한국 TV를 즐겨보고, 공원가는 것도 좋아하고 말이지요. 특이하지도,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는 않습니다. 주위의 모든 것에 질문을 던지고 영감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늘 컬렉션 생각을 머리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계속 생각하고, 노력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사람들이 '특별'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줄 겁니다.

